

제16회 목포문학상

당 선 작 발 표



목 포 시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제16회 목포문학상 당선작

구분		부문	당선자	지역	작품명	상금
목포 작가상	본상	소설	홍파랑	목포	『살아남은 자들』	6백만원
	작품상	시	유원희	서울	「감자젓」	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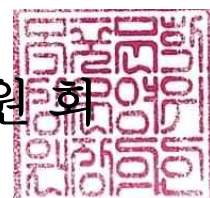
□ 작품 접수 현황

- 분 야 : 목포작가상(전장르)
- 접수기간 : '24. 8. 1. ~ 8. 16.
- 접수현황 : 102명

구분	계	시 시조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아동 문학
계	102명	65명	15명	1명	-	11명	10명
목포 작가상	본 상(26)	13	4	-	-	4	5
	작품상(76)	52	11	1	-	7	5

2024. 9. 11.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제16회 목포문학상

심사위원 및 심사평



목 포 시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제16회 목포문학상 심사위원

성명	주요경력사항
김수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중앙일보 연말 장원 - 1995,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조 당선 - 2020, 아르코문학창작지원 성파시조문학 대상 수상
이병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 『문학수첩』 신인상 시 - 2010,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당선 - 시집 『옆구리의 발견』, 『아흔아홉개의 빛을 가진』 등 - 송수권시문학상 젊은시인상, 한국시인협회 젊은시인상 등
손동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 전남일보 신춘문예 동시 외 다수 - 시집 『진달래꽃 속에는 경의선이 놓여 있다』 등 - 동시집 『참 좋은 짝』, 『그림엽서』 등 - 초, 중등 국어교과서 「풀이래요」, 「낙타」 등 시 수록
이미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대 국문학과 교수 - 1985,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 현대문학이론학회 회장 역임
박성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전문기자(소설전공/ 문학박사) - 광주일보 문화부장 - 2000, 전남일보 신춘문예 당선 - 소설집, 『하루』 외 6권
안희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한국희곡작가협회 이사장 - 2001 전남일보 신춘문예 희곡당선 『회장님, 씻으셨습니까?』 외 다수 - 『운수 좋은 날』 외 다수 뮤지컬

제16회 목포문학상 심사평

심사위원장 이미란

심사위원 김수엽, 박성천, 손동연, 안희철, 이병일

2024년 목포작가상 공모에 본상 응모자는 26명(시·시조 부문 13명, 소설 부문 4명, 수필 부문 4명, 아동문학 부문 5명)이었고, 작품상 응모자는 76명(시·시조 부문 52명, 소설 부문 11명, 희곡부문 1명, 수필 부문 7명, 아동문학 부문 5명)이었습니다. 본상과 작품상 모두 각 부문 심사위원들의 예심을 거쳐 최종심에 오른 작품을 심사위원 전원이 치열하게 논의하여 수상작을 결정했습니다.

본상 부문에서 최종심에 오른 책은 시·시조 부문의 『온금동의 달』, 아동문학 부문의 『삼별초, 사라진 왕국을 찾아서』, 소설 부문의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온금동의 달』은 이 세계의 사물과 생활을 공감각적 언어로 아름답게 조율한 작품들이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삼별초, 사라진 왕국을 찾아서』는 삼별초 항쟁을 최초로 다룬 장편동화로서 성실한 자료 조사와 생생한 전라도 사투리의 구현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한국의 근미래를 배경으로 기후 온난화와 이주자 차별과 같은 오늘날의 문제들을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으로 풀어냈는데, 하나의 모티브를 서사화하는 능력과 이야기를 끌어가는 추동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 책 모두 본상 수상작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만,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심사위원들은 감각적인 문체와 트렌디한 방식으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드러낸 『살아남은 자들』들이 미래 문학을 선도하는 목포작가상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심사위원 전원은 만장일치로 『살아남은 자들』을 본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작품상 부문에서 마지막까지 최종에서 논의된 작품은 시 「감자젓」 외 2편과 시조 「여자, 돌아오다」 외 2편이었습니다. 시 부문의 응모자는 시적 이미지와 언어감각과 상상력이 탁월하였습니다. 특히 표제작은 “방을 꺼 안으면 / 영정사진 속 할머니가 집에서 빠져”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윤슬처럼 반짝거리는 감동을 내재한 수작이었습니다. 시조 부문의 응모자의 작품도 초장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시적 표현들이 종장으로 나아갈수록 긴장감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만 보완한다면, 아름다운 시조를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소설과 희곡, 수필과 아동문학의 작품들은 주제와 상상력, 장르적 특색, 그리고 표현의 균질감이 조금 느슨하여, 최종심엔 오르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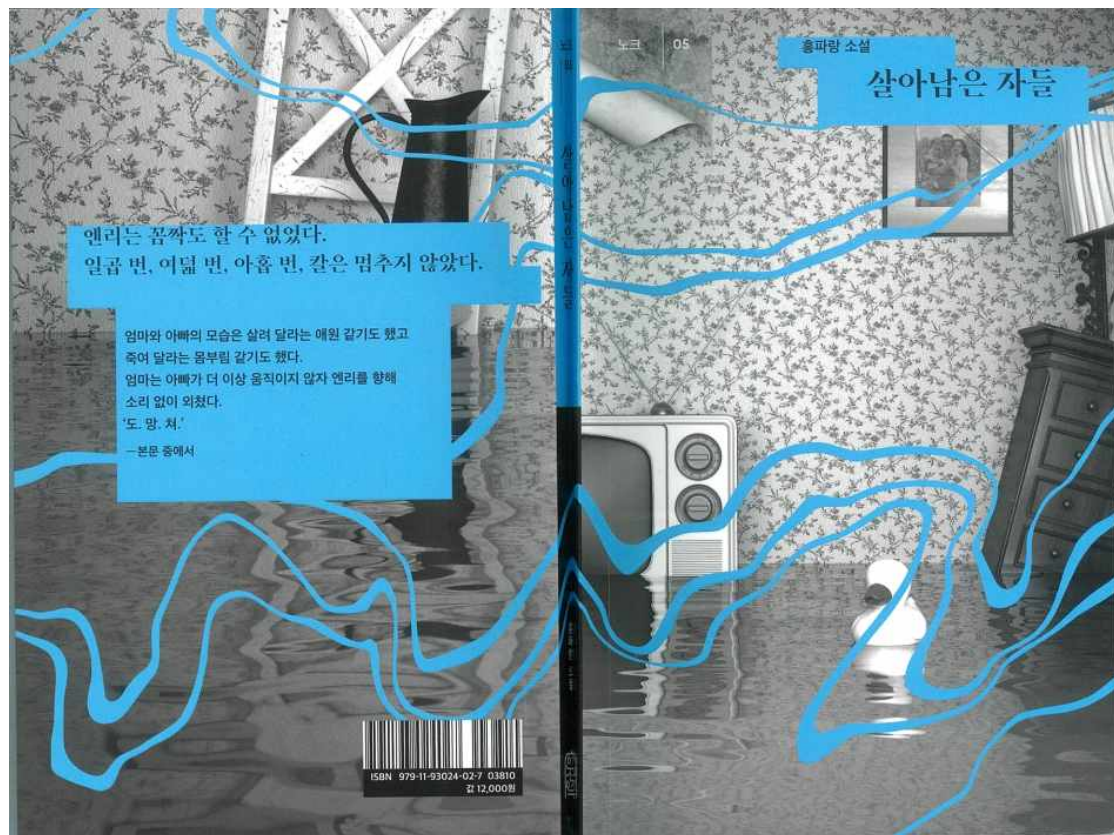
2024년 목포작가상 본상과 작품상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 전하며, 응모해 주신 모든 작가분들의 문학적 성취를 기원합니다.

제16회 목포문학상

목포작가상 당선작

『살아남은 자들』

지은이 : 홍파랑 펴낸곳 : 안전가옥 발간 : 2023년 4월



『살아남은 자들』 줄거리

기후 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해 물에 잠긴 대한민국. 전남 영광에서 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모와 평범하게 살아가던 엔리의 삶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 뒤 모든 것이 바뀐다. 극우주의자 폭력 집단인 자청단(자유청년단)의 손에 부모를 잃은 엔리는 복수를 다짐한다.

엔리는 자청단에 의해 얼굴에 낙인이 찍힌 아주아와 연인을 강제로 빼앗긴 사라, 자청단 활동에 회의를 느끼는 단원 해수를 만나고 해방전선에 가담해 함께 자청단의 근거지를 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차별과 혐오 그리고 폭력이 만연한 잔인한 세계에서 이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전한 땅도 신선한 먹거리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세상에서 인간의 어두움은 극에 달하지만, 그 안에서도 주인공들은 탈출구를 찾으려 노력한다.

감 자 젓

유 원 희

방을 껴안으면
영정 사진 속 할머니가 집에서 빠져나옵니다

굽은 등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저수지 아래 마른논으로 스며들면
마당 솔 안에 선 감자가 익어 갑니다
아카시아꽃보다 달달한 감자 냄새
할머니는 한 바가지씩 폭 떠서
식구 많은 감나무
입부터 들이미는 칠월도 펴주면
벽에 붙은 달력 새참 머리에 이고 콩밭으로 달음박질합니다
봉숭아꽃 따러오는 아기별들 주려고
한 그릇은 뚜껑 덮어 이불속에 넣어둡니다
바람은 솔단지 팍팍 긁어
뒷산 맹감나무 흔드는 아이들에게 달려갑니다
부채 앞에 둘러앉아
할머니가 호호 불어주는 감자를 손에 쥐면
천장 옥수수에 매달린 별명들이
꿈지락거리며 손가락을 뺏니다
긴 꼬리에 불붙은 밤에도
할머니 굽은 등에 달라붙어 밤새 감자젓을 먹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할머니 젓이 텅텅 부어오릅니다.